



2026 사목계획서

“함께 걸으며 복음을 살아감시다.”

- 관계의 회심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 작 가: 하삼두 스테파노
- 작품명: 함께하는 기쁨

안동교구 사명선언문

기쁘고 떳떳하게



우리는
이 타에서
열린 마음으로
소박하게 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선을 나누고 섬김으로써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안동교구 사명선언문

목 차

I . 교구장 사목교서	1
1. 2026년 천주교 안동교구장 사목교서	3
2. 2026년도 교구 공통 실천사항	9
3. 관계의 회심을 위한 기도문	10
4. 농민을 위한 기도	11
5.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기도	12
6.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특별사목교서	13
II . 교구 사목계획	21
1. 교구사목계획	23
1) 교구장 견진성사 본당 방문	23
2) 사무처	24
3) 성인사목	26
4) 성소사목	27
5) 주일학교사목	28
III . 지구 • 제단체 계획	29
1. 지 구	31
2. 사회복지회	34
3. 단 체	35
1) 평신도사도직협의회	35
2) 꾸르실료	36
3) 레지오 마리아	36
4) 성서사도직	37
5) 성령쇄신봉사회	38
6) 선택(Choice)	38

7) 정의평화위원회	38
8) 부부일치운동(ME)	39
9) 가톨릭간호사회	39
10) 가톨릭교수회	40
11) 생태환경위원회	40
12) 가톨릭농민회	41
13) 빈첸시오회	42
14) 향주삼덕선교회	42
15) 가톨릭대학생연합회	43
16) 가톨릭청년연합회	43
17) 수녀연합회	44
18) 가톨릭여성연합회	44
19) 가톨릭문인회	44
20) 가톨릭미술가회	45
21) 가톨릭전례꽃꽂이 연구회	45

IV. 월중행사표

47

V. 교구 간행물 원고 담당 및 기타행사

61

1. <가톨릭안동> 강론 담당	63
2. <티움> '부르심' 원고 담당	65
3. <못자리> 원고 담당	66
4. <두레판> 원고 담당	68

I. 교구장 사목교서 및 사목활동 지침

1. 2026년 천주교 안동교구장 사목교서

“함께 걸으며 복음을 살아갑시다.”

- 관계의 회심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

하느님께서 맡기신 여정 안에서

1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구는 지난 몇 해 동안 통합 생태적 교회를 위해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¹⁾ 창조 질서 안에서 회심을 실천하고, 하느님께서 맡기신 생명과 피조물을 돌보는 문화를 키워 왔습니다. 또한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며, 청년들과 함께 교회의 미래를 꿈꾸고 세대 간의 신앙적 연대를 새롭게 일구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여정은 단순한 일회적 과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교구가 계속 이어가야 할 근본적인 사목의 방향이며, 동시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대적 소명입니다.

2 이 두 여정 - 생태적 회심과 세대의 연대 - 은 서로 다른 길이 아니라, 관계의 회심이라는 한 뿌리에서 자라난 길입니다. 하느님과 피조물, 세대와 세대, 이웃과 이웃이 서로 존중하고 연결될 때, 그곳에서 교회는 복음의 생명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의 교회 현실 속에서

3 한편, 오늘 우리 교구는 새로운 도전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젊은 세대의 이탈, 중간 세대의 피로감, 예비자 감소는

1) 천주교 안동교구장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특별사목교서의 제목.

우리 교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사회 구조의 변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교회에조차 자주 침투하는 개인주의 문화와 사람들의 심화된 고립감”²⁾과 같은 시대적 흐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앙은 점점 공동체적 체험보다는 개인의 내면적 영역에 머물게 되었고, 서로를 지탱하던 신앙적 유대와 연대가 느슨해졌습니다.

4 그 결과, 하느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까지도 단절되고 있습니다. 신앙이 ‘함께 걷는 여정’이 아니라 ‘혼자 가는 선택’으로 머물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생명력과 따뜻함을 잃게 됩니다. 결국 신자 감소와 세대의 단절은 단순한 수치 변화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관계의 약화에서 비롯된 신앙의 쇠퇴를 드러내는 징표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의 교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부분이며, 교회의 존재 방식 자체를 다시 묻게 하는 지점입니다.

현실 앞에서 우리가 식별하는 길

5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며 우리는 교회가 어디에서 다시 힘을 얻고, 어떻게 복음의 생명력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겉으로 드러난 변화만으로 설명되기보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지탱하던 신앙적 연대가 약해지면서 나타난 징표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 활성화나 제도적 보완이 아니라, 신앙의 근원을 다시 바라보는 보다 근본적인 성찰입니다.

6 이러한 성찰 안에서 교회는 우리에게 분명한 빛을 비추어 줍니다.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정기총회(2021년-2024년)의 여정은 교회의 생명력이 관계 안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오늘의 교회가 관계를 새롭게 하는 자리에서 출발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7 우리 교구가 걸어온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역시 하느님, 이웃,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 존중과 공감, 돌봄을 회복하자는 초대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 흐름은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할 방향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우리 신앙의 생활이 관계 안에서 새로워져야 함을 보여 줍니다.

2)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최종문서 48항.

8 그러므로 2026년, 우리 교구는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고 회복하는 자리에서 사목의 방향을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하느님과의 친교를 깊게 하고, 서로의 삶을 지탱하며, 피조물과 조화를 이루는 움직임 안에서 교회는 다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본당과 여러 공동체가 걸어가는 모든 사목이 새롭게 정돈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일상적 만남과 작은 실천이 복음의 기쁨을 드러내는 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교회의 생명

9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정기총회 최종문서 49항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교회 구조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관계들이다.” 그리고 50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시노드 교회가 되려면 관계의 진정한 회심이 필요하다.” 이 두 문장은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교회의 쇄신은 제도나 형식의 변화보다 관계의 쇄신에서 시작됩니다. 교회의 생명은 조직이나 구조의 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맺는 관계, 이웃과 나누는 관계, 그리고 피조물과 이어지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교회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살아 있는 복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하느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공감과 돌봄으로 관계를 회복할 때, 교회는 세상 안에서 복음의 향기를 다시 품게 됩니다.

10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특별사목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제11항 역시 이 길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며, 보살피지 못하고, 함께 걸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과감히 회개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2026년 우리 교구는 바로 이러한 가르침에 응답하며 복음적 관계의 회복, 곧 관계의 회심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관계의 회심이란

11 ‘관계의 회심’은 하느님을 새롭게 만남으로써 삶의 모든 관계가 복음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변화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회심이 그 모범입니다.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길에서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사도 9,4) 하고 바오로를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상처 입히던 이들의 고통이 곧 주님의 아픔임을 깨닫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열리는 은총을 체험합니다. 이 은총의 만남은 바오로가 사람을 보는 눈과 교회를 향한 마음 전체를 바꾸어, 그를 박해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바오로의 회심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때, 이웃과 공동체와의 관계 역시 새로워진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이며, 그 은총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으로 서로를 만나고,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보여 주신 관계의 방식

12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을 드러내신 방식은 우리에게 복음적 관계의 기준을 제시하며, 그것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다가감입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어둠 속에서도 아담을 부르시고(창세 3,9),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요한 1,14). 시노드 최종문서 50항도 “관계를 돌보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다가가는 사랑은 관계의 첫걸음이며, 교회 역시 이 하느님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경청입니다. 하느님은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탈출 2,24), 예수님께서 “경청하시지 않거나 대화를 시작하시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51항). 그분은 만나는 이들의 필요와 믿음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웃의 말뿐 아니라, 그 마음의 울림에 귀 기울일 때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방식에 동참하게 됩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무르고 공감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셋째, 돌봄입니다. 하느님은 광야에서 “사람이 제 아들을 업고 다니듯”(신명 1,31) 당신 백성을 이끄시고, “독수리 날개에 태워”(탈출 19,4) 데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요한 10,11)고 하시며 돌봄이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시노드 최종문서 111항에서 교회는 “익명의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고 형제적 관계를 맺게 하도록 부르심[받았고,] 이를 위하여… 사목의 새로운 형태들을 탐구하고 구체적인 돌봄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돌봄은 시혜를 넘어선 함께 짊어지는 사랑이며, 이웃의 상처와 짐을 함께 나누는 행위입니다.

하느님을 닮는 교회 — 사목의 근본적 변화

13 교회가 하느님을 닮을 때, 사목의 방향도 근본적으로 새로워집니다. 이 변화는 거대한 개혁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만남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는 일상적 회심입니다. 사목은 더 이상 ‘관리의 구조’에 머물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셨듯이, 사목도 함께 걷는 동반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단순히 행사를 조직하는 공간이 아니라, 만남과 친교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보다 사람이 우선되고, 일정보다 관계가 먼저 세워질 때, 그 안에서 복음은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완벽한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고, 한 번 더 찾아가며, 한 번 더 위로하는 그 순간, 복음은 다시 생명을 연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회심의 실제이며, 교회를 새롭게 하는 가장 깊은 사목적 변화입니다.

안동교구의 실천 방향

14 2026년, 우리 교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방식 그대로 다가가고, 경청하며, 돌보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본당은 ‘만남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본당은 신앙생활의 중심일 뿐 아니라, 누구나 와서 쉬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집이 되어야 합니다. 닫힌 공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초대하고 위로하는 열린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제는 ‘동반자이자 위로자’**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신자들의 삶 속에

발을 담그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 속에 함께 머무는 사제, 하느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경청하며 위로하는 사제가 될 때, 교회는 목자의 향기를 다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평신도는 ‘서로의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성직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신도의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작은 일상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빛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한층 더 따뜻하고 살아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15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관계의 회심은 교회가 새롭게 존재하는 방식 자체입니다. 하느님께서 가까이 오셨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다가갑시다. 하느님께서 귀 기울이셨듯이, 우리도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합시다. 하느님께서 품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품읍시다. 그 길 위에서 교회는 다시 살아 움직이며, 복음의 기쁨이 우리의 얼굴과 삶 안에 드러날 것입니다.

**‘관계의 회심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걸으며 복음을 살아갑시다!”**

2025년 11월 30일(대림 제1주일)

천주교 안동교구장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 권혁주*

2. 2026년도 교구 공통 실천사항



3. 관계의 회심을 위한 기도문

“함께 걸으며 복음을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느님,
당신의 자비를 본받아
저희도 서로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소서.
무심함과 거리감을 넘어 마음을 열고
외로운 이들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게 하소서.

삶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신 예수님,
저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참된 경청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쁨에는 함께 웃고, 슬픔 앞에서는 곁을 지키는
진정한 벗이 되게 하소서.

새 힘을 일으키시는 성령님,
돌봄이 미치지 못해 어려움 속에 머무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어,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며 공동체의 품으로 이끄는
참된 돌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모두가 관계의 회심을 살아 복음의 생명력을
새롭게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25.11.19. 천주교 안동교구장 인준

4. 농민을 위한 기도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느님 아버지,
우주에 질서와 조화를 주시고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시어
온갖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농업이 경시되는 상황에서도
땀 흘려 농사짓는 농민들이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달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농사일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날이 갈수록 생명이 죽어가고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는 오늘날에도
모든 이가 마음의 고향인 농촌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온갖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일치와 신뢰가 싹트게 하시고
농촌과 도시가 하나로 이어져
온 누리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5.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기도

젊은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를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 자신을 당신께 맡겨 드리오니,
온 세상 젊은이들이 교회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친교와 일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미 그리고 영원히’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님,
“용기를 내어라” 하신 당신의 말씀 안에서
온 세상 모든 이가 희망을 발견하고,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가 세상에 대한 승리임을 깨닫게 하소서.

사랑의 불꽃이신 성령님,
당신의 놀라운 손길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으니,
한국 순교 성인들의 믿음이 저희 가슴에도 타올라
평화와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세계청년대회의 순례 여정을 통해
저희 모두가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안에서 당신의 뜻을 찾으며,
모든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걷는 시노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 자비와 평화의 모후이시여,
-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후보성인들이여,
- ◎ 모든 젊은이들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6.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특별사목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통합 생태적 교회를 향하여 -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의 시작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2020년 특별 사목 교서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교서는 「찬미받으소서」가 제시하는 통합 생태론의 정신에 따라 온전히 지속 가능한 세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을 출범하자는 교황님의 요청에 대한 한국교회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한국 주교단은 이 교서에서 “기후 변화에 관하여 차등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찬미받으소서」, 52항)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생태적 회개를 실천하며 복음을 선포할 것을 다짐”하고 2021년 5월, 그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주교단은 사스, 메르스, 에볼라에서 코로나19로 이어진 감염증 확산 사태가 현대 물질문명이 큰 전환기에 와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단순히 의학적, 경제적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현대문명 전체의 구조와 균형 안에서 통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기후 위기와 어머니 지구의 울부짖음은 교회가 수행해야 할 복음화 사명과 사목 활동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임에 뜻을 같이하며, 각 교구는 지속적으로 생태적 회개에 대한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통합적 위기

3 오늘날의 기후 위기는 단지 지구 자연 생태계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기후 위기는 현대 사회가 겪고 있는 더욱 근본적인 위기를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베네딕도 16세 전 교황님은 지난 2012년 신앙의 해를 개막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목격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통하여 ‘영성의 사막화’, 곧 ‘하느님 없는 삶이나 세상의 공허함’이라는 영성적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최근의 감염증 대유행과 기후 변화에 따른 불가항력적 재난들을 통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위기와 재난에 따른 두려움 또는 영적 공허함은 우리를 하느님께 더욱 온전히 의탁하게 하고 신앙인의 소명에 더욱 충실하도록 이끌어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를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는’(『찬미받으소서』, 62항) 더 큰 위기의 씨앗이 될 수도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후 위기는 단지 자연환경의 위기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신적, 영성적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자연환경의 위기와 사람들이 겪는 정신적 위기, 그리고 영성적 위기는 서로 다른 별개의 두 위기가 아닙니다. 이 위기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통합적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들의 바탕에는 사람이든 자연이든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을 “그저 우리의 소유물로 여겨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³⁾(『찬미받으소서』, 6항)하려는 유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곧 “오늘날의 위기는, 그것이 경제적 위기든 식량 위기든, 환경적 또는 사회적 위기든, 궁극적으로는 도덕적 위기이며, 그 모든 위기는 서로 연관되어”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덕적 위기, 통합적 위기** 앞에서 교회는 “‘인간에 대한 전문가’로서 창조주와 인간 그리고 창조 질서의 관계에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노력”⁵⁾하고, 교회와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3) 베네딕도 16세, 불차노-브레사노네 교구 성직자들에게 한 연설(2008.8.6.).

4) 베네딕도 16세, 제43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2010.1.1.), 5항.

5) 위와 같음, 4항.

위기의 원인 - “피조물에게 저지른 죄”⁶⁾, “궁극적으로 동일한 악”⁷⁾

5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자연환경과 사회 환경의 훼손은 모두 궁극적으로 동일한 악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이 악은 … 바로 인간의 자유는 무한하다는 생각입니다.”(「찬미받으소서」, 6항)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교황님은 교황이 되기 이전에 이미 “쾌락주의적이고 소비중심적이며 자기도취적인 문화가 그리스도교에 침투”했음을 지적하시며 “이런 문화가 우리를 물들여, 어떤 식으로든 종교적인 삶을 경시하고 이교도적으로 행동하며 세속적으로 변해가도록 하여 종교가 약화된다.”⁸⁾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6 우리는 교황님의 이 두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연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환경과 사회 환경의 훼손 그리고 종교 약화의 원인에는 하나의 같은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뿌리를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카인과 아벨, 노아와 바벨탑 이야기 등에서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인간이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왜곡하고 자유를 남용한 것이 바로 그 공통의 뿌리입니다. 이 공통의 뿌리가 교회에는 “영성의 사막화”라는 영적 위기를, 인류에게는 불평등과 소외라는 공동체적 위기를, 지구에는 “지구의 사막화”로 대표되는 생태적 위기를 가져온 악(惡), 궁극적으로 동일한 악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지구적인 위기를 도덕적이고 통합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7 이러한 위기들 속에서 교회가 살아가야 할 소명은 생태적 회개를 통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 “생태적 악”을 이겨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6) 「찬미받으소서」, 8항.

7) 「찬미받으소서」, 6항.

8) 아브라함 스코르카, 「천국과 지상」, 2013, p.304.

8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라는 이 표현은 우리 안동교구의 「사명 선언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터에서 …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이 표현에는 생명의 원천이신 우리 하느님께 그 뿌리를 둔 인간 생명과 자연 생명, 곧 모든 생명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겠다는 우리 교구민들의 사명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구는 일찍이 「교구 사명 선언문」에서 선언한 것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고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명을 충실히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생태적 회개를 통한 공동의 집 돌보기와 교회의 생태적 삶을 위해 같은 정신으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에 적극 동참해 나아갈 것입니다.

9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와 사람들의 생태적 회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생태적 악”, “궁극적으로 동일한 악”에 대항하여 절제와 절약을 현대적 금욕생활의 수칙으로 삼겠습니다.

농민, 사회적 취약 계층, 이주 노동자 등 급격한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보살피겠습니다. 생명 농업이 곧 하느님 창조 사업이라는 소명 의식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애쓰고 있는 교구 가톨릭농민회와 함께,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며 모두를 살리는 생명공동체 운동을 지속하겠습니다. 개인의 식생활 개선과 친환경 제품 사용, 기업들의 친환경 경영을 위해 착한 소비, 친환경 소비를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백두대간과 영남의 젓줄인 낙동강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교구에 생태환경 사목을 실행하는 조직과 활동을 더 확대하고 활성화해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한 피조물 보호와 생태적 회심을 위한 미사를 앞으로도 지속하고, 또 전례와 성사와 기도 안에서 하느님 창조 질서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가정과 본당, 교구, 그리고 지역 사회 공동체가 이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시도록 초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구는 데 함께 매진하겠습니다.

“통합 생태적 교회를 향하여”

10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생태적 영성은 교회의 외적인 활동만이 아니라 교회를 내적으로 쇄신하여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형제자매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걸어갈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해집니다. ‘교회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는’(1코린 12,26 참조) 살아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된 신자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신비체”⁹⁾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내적으로 더욱 튼튼해진다면 세상을 위한 소명을 살아가는 데에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통합 생태적 교회**는 이 신비체의 모든 지체,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생태적 회개를 통해 내적인 친교와 일치를 이루고,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통합 생태적 교회”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 생태적인 교회를 향하여” 모두가 함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11 통합 생태적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와 개인 안에 구조적이고 습관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세속적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 대한 성찰과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태적 회개가 어머니이신 교회를 위협하는 생태적 악을 이겨내는 **치유와 쇄신의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언제나 정화되어야 하는 끊임없는 참회와 쇄신”¹⁰⁾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며, 보살피지 못하고, 함께 걸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과감히 회개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곧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태적 회개’가 단지 ‘환경보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의 모든 사목 분야에서 사랑의 복음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신앙 행위로 승화”¹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통합 생태적 교회”로서 실제로 생태적인 삶을 추구하며 실천할 때 교회는 그 자체로 세상의 변화를 일깨우는 복음화 사명의 실천적인 표징이 될 것입니다.

9) 「교회헌장」, 2항 참조.

10) 「교회헌장」, 8항.

11) 한국 주교단 특별 사목 교서,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

12 세상이 당면한 여러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의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인류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찬미받으소서」, 202항) 누구보다도 먼저 교회와 우리 신앙인 각자가 이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인류가 이 책임에 합당하게 사는 것에 실패할 때는 언제나, 우리가 피조물들과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돌보지 않을 때는 언제나 그 길이 파괴로 열리게 되고 마음은 완고해 집니다.”¹²⁾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와 인류가 직면한 이 위기들로부터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공동의 집을 지켜내기 위해 함께 책임지고, 함께 걸어가도록 불림을 받았습시다. 우리 모두가 “통합 생태적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초대받은 것입니다.

13 통합 생태적 교회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 교회의 수많은 자산으로부터 뛰어난 영감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자신의 길잡이요 영감으로 삼으신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우리 신앙의 핵심인 성체성사, 그리고 2021년부터 시작된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로부터 우리의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영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통합 생태론을 기쁘고 참되게 실천한 가장 훌륭한 모범”(「찬미받으소서」, 10항)이십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인 성찬례도 역사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사고방식에 참다운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¹³⁾ ‘성찬례는 늘 세상의 제대에서 거행되고’¹⁴⁾, ‘하늘과 땅을 이어 주기 때문입니다.’(「찬미받으소서」, 236항 참조) 또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을 주제로 하는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와 우리 교구 시노드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통합 생태적 교회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노드의 목적인 “함께 걸어가기”가 바로 하느님 백성 공동체를 구성하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12) 프란치스코, 교황 즉위 미사 강론(2013.3.19).

13) 베네딕도 16세, 「사랑의 성사」, 92항 참조.

14) 요한 바오로 2세,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8항 참조.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14 “우리는 이 터에서 …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우리 교구의 이 「사명 선언문」의 정신대로 우리 교구민 모두가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충실히 살아,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서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느님 백성인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함께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로 생태적 회개를 통해 이 세상에서부터 통합 생태적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믿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팬데믹과 기후 위기, 그리고 세속주의라는 풍랑 속에서 세상과 교회가 체험한 위기와 공허함으로부터 ‘믿는다는 것의 기쁨’을 새롭게 발견하고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쁨에 대한 이러한 체험이야말로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구원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보여 주며 우리 교회를 “기쁨 넘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15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공동의 집인 지구, 하지만 ‘우리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 그리고 폭력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지고 울부짖고 있는 우리 어머니인 지구’(「찬미받으소서」, 2항 참조)를 지키기 위한 7년 여정에 기도와 실천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욱 살아 있는 공동체로 만드는 데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의 보호자, 자연에 새겨진 하느님 계획의 보호자, 서로의 보호자, 환경의 보호자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피조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호합시다.”¹⁵⁾

15) 프란치스코, 교황 즉위 미사 강론(2013.3.19).

주님,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아멘.

2021.11.28.(대림 제1주일)

천주교 안동교구장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II. 교구 사목계획

1. 교구사목계획

1) 교구장 견진성사 본당 방문

	본당	방문 일자	비고
1	문경	4.19(주일)	부활 제3주일
2	강구	5.24(주일)	성령강림대축일
3	신기동	5.31(주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4	후포	6.21(주일)	연중 제12주일
5	남성동	6.28(주일)	연중 제13주일
6	의성	10.25(주일)	연중 제30주일

2) 사무처

	회의 · 교육 · 행사	일 시	대 상	장 소
교 구 청	참사회익	1.22(목) 3.17(화) 5.19(화) 6.23(화) 8.18(화) 10.20(화) 12.22(화)	해당 사제	교구청
	사제평의회	2.9(월) 4.13(월) 9.22(화) 11.2(월)	해당 사제	교구청
	재무평의회	1.29(목) 4.21(화) 10.22(목)	해당 사제	교구청
	건축위원회	2.5(목) 5.28(목) 11.12(목)	해당 사제	교구청
	성지위원회	6.16(화)	해당 사제	교구청
	학교법인 이사회	1.21(수) 2.25(수) 4.22(수) 5.27(수) 8.19(수) 10.28(수) 11.25(수) 12.23(수)	해당 이사	교구청

	회의·교육·행사	일시	대상	장소
사제 · 수도자	○ 사제 회의	2.9~10(화) 11.2~3(화)	교구 사제 교구 사제	농은수련원 농은수련원
	○ 사제 연수	4.13~15(수)	교구 사제	농은수련원
	○ 사제 피정	6.8~12(금)	교구 사제	농은수련원
	○ 교구 수도자 모임 (교구 주관)	3.24(화)	교구 수도자	교구청
	○ 교구 수녀연합회 모임 (연합회 주관)	10.19(월)	교구 수도자	
	○ 선교사목 주교위원회 ○ 순교자현양과 성지순례 사목위원회	연중	교구장	
사무 처 주 관	○ 성유축성미사	4.2(목)	교구 사제	주교좌목성동성당
	○ 유아교육연합회 모임	4.23(목)	원장	교구청
	○ 유아교육연합회 교사 연수	5.21(목)		Zoom 연수
	○ 유아교육연합회 총회	9.2(수)	원장	교구청
	○ 본당재정담당자 모임	11.14(토)	본당재정담당자	교구청

3) 성인사목

회의·교육·행사	일시	대상	장소
○신년 인사회	1.2(목)	사제 수도자 사목임원 교구단체장 공소회장단	주교좌목성동성당
○성체분배권 수여 교육	1.8(목)	수도자, 평신도	교구청
○사목임원·제단체장 연수	1.24(토)	사목임원,제단체장	상지대
○구역·반장 연수 1	2.21(토)	안동·의성지구	교구청
○구역·반장 연수 2	2.28(토)	상주지구	
○교구 수도자 모임	3.10(화)		교구청
○제11기 신양대학 1학기	3.11(수)	신양대학생	교구청
○구역·반장 연수 3	3.14(토)	문경지구	
○구역·반장 연수 4	3.21(토)	북부지구	
○구역·반장 연수 5	3.28(토)	동해지구	
○제11기 신양대학 1학기 종강	5.27(수)	신양대학생	교구청
○귀농·귀촌 신자 모임	7.11(토)		
○제11기 신양대학 2학기 개강	8.26(수)	신양대학생	교구청
○가나혼인 강좌	8.29(토)		교구청
○공소 수녀·선교사 모임	9.1~2(수)		
○순교자현양 미사(마원진안리성지)	9.20(주일)		마원진안리성지
○어르신들의 날(지구별)	10.9(금)	어르신	해당 지구장 성당
○제단체장 모임	10.17(토)		교구청
○전례 봉사자 교육	10.31(토)		
○제11기 신양대학 2학기 종강	11.18(수)	신양대학생	교구청
○전례 봉사자 교육	11.21(토)		
○공소 봉사자 연수	11.27~28(토)	공소회장단, 선교사	농은수련원

4) 성소사목

회의 · 교육 · 행사	일 시	대 상	장 소
○부제품 피정	25.12.30(일) ~1.10(토)	부제품 대상자 2명	한티, 우곡성지
○부제 서품식	1.11(주일)		주교좌 목성동
○예신 겨울 캠프	1.24~25(주일)		
○초등부 복사단 연수	1.31(토)~2.1(주일)		농은수련원
○대신학생 동계연수	2.1(주일)~3(화)		
○예신 개강미사 및 3월 모임	3.15(주일)		교구청
○성소주일(예비신학생&신학생)	4.26(주일)		대구 신학교
○예신 5월 모임 ○대신학생 부모 모임	5.17(주일) 5.30(토)~31(주일)		
○대신학생 하계연수 ○예신 6월 모임	6.15(월)~17(수) 6.21(주일)		
○초등부 성소자 캠프	8.8(토)~9(주일)		
○예신 9월 모임	9.20(주일)		
○예신 10월 모임	10.18(주일)		
○예신 11월 모임	11.15(주일)		
○예신 종강미사	12.13(주일)		교구청

5) 주일학교사목

회의·교육·행사	일시	대상	장소
○ 교리교사학교 1	3.8(주일)	주일학교 담당신부, 수녀, 교리교사, 학부모	교구청
○ 상반기 중고등부 회장단 모임	3.21(토)~22(주일)	중고등부 회장단	미정
○ 교리교사학교 2	4.19(주일)	주일학교 담당신부, 수녀, 교리교사, 학부모	교구청
○ 교리교사학교 3	5.10(주일)	주일학교 담당신부, 수녀, 교리교사, 학부모	교구청
○ 교리교사학교 4	6.14(주일)	주일학교 담당신부, 수녀, 교리교사, 학부모	교구청
○ 초등부 여름 신앙 캠프	7.4(토)~5(주일)	초등학생	농은수련원
○ 청소년 청년 축제	7.24~26(주일)	중고등부, 청년	농은수련원
○ 하반기 중고등부 회장단 모임	9.13(주일)	중고등부 회장단	교구청
○ 교리교사의 날	11.8(주일)	주일학교 담당신부, 수녀, 교리교사, 학부모	농은수련원
○ 주일학교 수녀 각 지구별 모임	3월~4월 중	주일학교 담당수녀	각 지구별 본당

Ⅲ. 지구 • 제단체 계획

1. 지구

	회의·교육·행사	일시	장소	비고
안동지구	지구 사목회의	2월, 6월, 10월 셋째 주 오후 3시	주교좌 목성동, 갈전마티아, 송현동	2월은 떡국나눔과 웃놀이
	지구 사제모임	홀수달 셋째 금요일 12:00	주교좌 목성동, 송현동, 용상동, 정상동, 태화동, 갈전 마티아	
	부활 합동판공성사	본당별 일정 조율	각 본당	
	사순특강	사순 제1주간 금요일 3.13(금) 19:30	주교좌 목성동	주제 및 강사 추후 결정
	위령의 날 합동위령미사	위령의 날	안기동 묘원	주관: 주교좌 목성동
	대림특강	대림 제1주간 금요일 12.4(금) 19:30	주교좌 목성동	주제 및 강사 추후 결정
	지구 청년부	연합미사 연 2회	송현 or 목성	예산 일부 지원
		연합 하계 나들이 '청년의 날' 행사	미정 목성동	
	지구(중고등부)주일학교	연합미사 연 2회	송현 or 갈전	예산 일부 지원
봄 운동회		상지대		
여름 신앙학교		북면성당		
동해지구	지구사제회의	1.9(금)	후포 본당	
		4.3(금)	영해 본당	
		9.18(금)	영덕 본당	
		10.16(금)	강구 본당	
	지구사목회	2.22(주일)	울진 본당	
10.25(주일)		진보 본당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 유해 현시 일정	동해지구 : 2026년 12월 05일 ~ 2027년 02월 28일			
	영덕 지역	2026년 12월		
	울진 지역	2027년 01월		
	청송 지역	2027년 02월		

	회의·교육·행사	일시	장소	비고
문경지구	지구 사제회의	수시		지구 사목회의
	구역반장 연수		점촌동	대강당(나섬의 집)
	지구 사목회의	2.1(주일) 7.5(주일) 11.1(주일)	모전동 문경 신기동	웃놀이
	사순 신앙강좌	3.25(수)	함창	2.18 재의 수요일
	부활 합동판공성사	3.17(화) 3.18(수) 3.19(목) 3.20(금)	모전동 점촌동 함창 가은 문경 신기동	*주님부활대축일 4월5일 *금요판공:가은(함창), 문경(점촌), 신기(모전)
	성지 제초작업	5월-6월 중 8월-9월 중	본당별 담당지역	별초시기 고려 협의
	대림 신앙강좌	12.4(금)	점촌동	
	성탄판공성사	12.8(화) 12.9(수) 12.10(목) 12.11(금)	점촌동 함창 모전동 가은 문경 신기동	*금요 판공 : 가은(모전) 문경(함창) 신기(점촌)
북부지구	지구사목회의	2.22(주일) 6.28(주일) 10.25(주일)	풍기 하망동 휴천동	사제, 수도자, 사목임원
	지구사제모임	1.7(수) 3.4(수) 5.6(수) 8.5(수) 10.7(수)	가흥동 봉화 예천 춘양 풍기	사제 (본당, 특수사목)
	구역·반장연수	3월 중	휴천동	북부지구
	사순특강	사순시기	하망동	사제, 수도자, 전교우
	부활 합동판공	사순 제4주간	각 본당 순회	
	대림특강	대림시기	휴천동	사제, 수도자, 전교우
	성탄판공	대림 제3주간	각 본당	

	회의·교육·행사	일 시	장 소	비 고
상주지구	지구 사목회의	2.1(주일) 15:00	계림동	
		7.5(주일) 15:00	남성동	
		11.1(주일) 15:00	서문동	
	지구 사제모임	1.28(수) 11:30	사별퇴강	
		8.26(수) 11:30	서문동	
		10.7(수) 11:30	옥산	
		12.2(수) 11:30	화령	
	지구 수녀 모임	연 3회	미정	
	부활/성탄 합동판공	3월/12월	각 본당	
	신앙 강좌	3.13(금) 19:30	서문동	사순특강
12.4(금) 19:30		남성동	대림특강	
의성지구	지구 사목회의	1.11(주일) 5.3(주일) 10.11(주일)	풍양성당 구담성당 다인성당	친교(웃놀이) 사목활동 나눔 지구 사목계획 수립
	지구 사제모임	매월 첫 금요일	각 본당	
	부활 합동판공성사	사순시기	각 본당	지구 본당 참여
	성탄 합동판공성사	대림시기	각 본당	지구 본당 참여
	위령의 날 묘지 미사	위령의 날	의성성당 묘원 다인성당 묘원	의성성당 다인,안계,풍양
	사순 특강 대림 특강	사순시기 대림시기	의성성당 의성성당	지구 본당 참여

2. 사회복지회

회의 · 교육 · 행사	일시
○ 1/4분기 법인 연구위원 모임	2.19(목)
○ 1/4분기 법인 실무위원 모임	2.20(금)
○ 1/4분기 사회복지시설장 회의	2.26(목)
○ 사회복지법인 이사회(결산)	2.27(금)
○ 상반기 법인 실무위원 모임	3.13(금)
○ 정착마을 회장단 회의	3.20(금)
○ 상반기 신입직원 교육	4.10(금)
○ 정착마을 한마당잔치(농은수련원)	4.24(금)
○ 요셉의 집 감사미사	5.2일(토)
○ 2/4분기 법인 연구위원 모임	5.13일(수)
○ 2/4분기 법인 실무위원 모임	5.14일(목)
○ 2/4분기 사회복지시설장회의	5.15일(금)
○ 안동교구 사회복지 종사자 연수 1차(농은수련원)	6.11~12일(목~금)
○ 안동교구 사회복지 종사자 연수 2차(농은수련원)	6.18~19일(목~금)
○ 3/4분기 법인 실무위원 모임	8.28(금)
○ 하반기 신입직원 교육	9.4일(금)
○ 3/4분기 법인 연구위원 모임	9.10일(목)
○ 3/4분기 사회복지시설장 회의	9.11일(금)
○ 마리스타학교 졸업식	9.18일(금)
○ 본당 사회복지 담당자 교육	9.26(토)
○ 정착마을 회장단 나들이	10.2일(금)
○ 4/4분기 법인 실무위원 모임	10.15일(목)
○ 사회복지 종사자 등반대회	10.23일(금)
○ 4/4분기 법인 연구위원 모임	11.12일(목)
○ 4/4분기 사회복지시설장 회의,	11.13일(금)
○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감사의 날	11.27일(금)
○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감사의 날	12.1일(화)
○ 사회복지법인 설립 기념일, 법인 후원자 감사의 날	12.10일(목)
○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사은의 날	12.11일(금)
○ 법인 정기이사회	12.18일(금)
○ 종무 미사	12.31일(목)

3. 단 체

1)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의·교육·행사	일 시	장 소	내 용
○신년인사회	1.2(금)	목성동성당	신년 인사 및 신임회장 임명
○1차 상임위원회	1.10(토)	교구청	연간 활동 방향 정립
○사목임원 제단체장 연수	1.24(토)	상지대	교구장 사목교서에 따른 연수
○평협상임위원연수	2.6(금) ~7(토)	치명자산 성지	사목임원 연수 평가 2026년 사업계획 추진 방향 정립 협의
○2차 상임위원회	4.11(토)	교구청	교구 친교의 날 행사 준비 사목임원 제단체장 하계 연수 준비
○교구 친교의 날	5.23(토)	문경지구	지구 및 본당 친선 체육대회
○사목임원 제단체장 하계연수	6.26(금)~ 27(토)	농은수련원	사목임원 및 제단체장 하계연수
○3차 상임위원회	7.18(토)	교구청	교구 친교의 날 행사 평가 사목임원 제단체장 하계연수 평가 어르신 신앙잔치 준비
○어르신의 날(지구별)	10.9(금)	미정	신청 지구에 방문 공연 및 미사
○4차 상임위원회	11.7(토)	교구청	2026년 사업보고 및 평가 2027년 사업계획 수립 총회 준비
○총 회	11.28(토)	교구청	예·결산 승인 및 2027년 계획 수립

2) 꾸르실료

회의·교육·행사	일 시	장 소	내 용
○ 월례미사	매월3째주 월요일	지구별본당	꾸르실리스마 미사 (3월~12월)
○ 남성 제48차 꾸르실료	1.15(목)~ 1.18(주일)	농은수련원	꾸르실료 체험
○ 꾸르실료 봉사자 피정	2.14(토)	교구청	꾸르실료 봉사자 재교육
○ 상반기 임원 간사 회의	3.7(토)	교구청	남성 제48차 결산, 여성 제46차 준비
○ 여성 봉사자 학교	5월~7월	교구청	여성 제46차 준비
○ 여성 제46차 꾸르실료	8.6(목)~ 8.9(주일)	농은수련원	꾸르실료 체험
○ 하반기 임원 간사 회의	8.22(토)	교구청	여성 제46차 결산, 남성 제49차 준비
○ 꾸르실료 봉사자 피정	10.24(토)	미정	성지 순례
○ 남성 봉사자 학교	10월~12월	교구청	남성 제49차 준비
○ 꾸르실료 총회	11.28(토)	교구청	2026년 결산 보고, 2027년 예산 편성 2026년 활동 보고, 2027년 활동계획 수립

3) 레지오 마리아

회의·교육·행사	일 시	장 소	내 용
○ 정기모임	1.4 2.1 4.5 5.3 8.2 10.4 11.1 12.6 (주일)	교구청 대회의실	월례회의
○ 단장교육 및 정기모임	3.7(토)	상지대	레지오 마리아 단장 영성 교육
○ 간부교육 및 정기모임	6.6(토)	상지대	간부로서의 갖추어야 할 자질 함양
○ 간부워크숍 및 정기모임	7.11(토)	농은수련원	현재 레지오 당면 과제 및 발전 방안
○ 간부피정 및 정기모임	9.5(토)	상지대	

4) 성서사도직

■ 열린성경강좌

회의 · 교육 · 행사	일 시	장소	내용
○ 열린 성경 강좌	1. 5(일)	갈전마티아	사도행전
	2. 2(일)		
	3. 2(일)		
	4. 6(일)		
	5. 4(일)		
	6. 8(일)		
	7. 6(일)		
	8. 3(일)		
	9. 7(일)		
	10. 5(일)		
	11. 9(일)		
	12. 7(일)		
○ 테마가 있는 성경	1. 23(금)	갈전마티아	다양한 성경 주제
	2. 20(금)		
	3. 20(금)		
	4. 24(금)		
	5. 22(금)		
	6. 19(금)		
	7. 24(금)		
	8. 21(금)		
	9. 18(금)		
	10. 23(금)		
	11. 27(금)		
	12. 18(금)		
○ 말씀축제 『하느님의 자비』	4.25(토)	상지대	주님의 자애는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비는 끝이 없어 아침마다 새롭다네.(애가3,22)
○ 성서 사도직 위원 연수	5.16(토)	농은수련원	
○ 성서 사도직 전국 세미나	8.18(화)~20	정하상교육회관	연수
○ 성서 사도직 위원 연수	10.17(토)	농은수련원	

5) 성령쇄신봉사회

회의 · 교육 · 행사	일 시	장 소	내 용
○교구성령묵상회(세미나)	8.21~23(일)	농은수련원	
○교구성령대회	11.25(수)	미정	
○교구성령기도회 (성령작은묵상회)	매월 넷째주 주일	지구별	지구별 순회

6) 선택(Choice)

회의 · 교육 · 행사	일 시	장 소	내 용

7) 정의평화위원회

회의 · 교육 · 행사	일 시	장 소	내 용
○총회 및 워크숍	부활절 전	점촌동성당	총회, 연간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 워크숍 추진
○임원회의	필요시	점촌동성당	세부활동계획 수립, 조정
○사회사목 협의회	필요시		-공동사업 계획 수립, 실행 -낙동강살리기 운동 및 미사 주관 (석포 영풍제련소문제 대응), 기타 기후위기 및 생명운동 등
○단체 피정	하반기		정평 혹은 사회사목 협의회 차원의 피정 (워크숍) 개최
○정평위원회 활동가 연수	하반기		전국 정의평화위원회 활동가 연수 참여 다른 교구 위원들과의 교류 및 연대 활동
○연대 활동(사업)	연중		소성리 사드, 석포 영풍제련소, 4대강, 환경 및 생태 문제, 핵발전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 활동 전개
○예비신자를 위한 사회교리 교육과정 개발, 개정, 보급	연중	점촌동성당	·예비신자 대상으로 개발한 사회교리 교육과정을 몇몇 본당에 시연해보며 개선작업을 지속해나감 ·교재, 교본 등을 매뉴얼화하여 각 본당에 보급

8) 부부일치운동(ME)

회의·교육·행사	일시	장소	내용
○안동ME 신년 미사	1.10(토)	교구청	안동ME협의회 가족 신년 미사
○한국 ME 팀사제 모임	5.5~5.6(수)	농은수련원	교구 대표팀 사제 및 한국 임원/ 분과 대표팀 사제 모임
○안동ME 제95차 주말	5.15~17(일)	농은수련원	제95차 주말 부부 강습
○안동 쇄신 주말	10.10~11(일)	농은수련원	ME주말 체험부부 쇄신 주말 강습
○안동ME협의회 정기총회	10.18(일)	후포성당	2026 활동 결산 및 대표부부 선출
○안동ME협의회 송년회	12.20(일)	후포성당	26년 사업 평가 및 2027년 계획 수립
○안동ME협의회 팀월례회	매월 2주	후포성당	ME협의회 관련 안건 협의
○한국ME 총회 참석	2월, 10월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각 교구별 활동 상황 공유

9) 가톨릭간호사회

회의·교육·행사	일시	장소	내용
○한국 가톨릭 간호사 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및 전국이사회	2월	아론의 집	-2025년도 사업결과 보고 -2026년도 사업계획 보고
○제단체장 연수			-2025년도 사업결과 보고 -2026년도 사업계획 보고
○가톨릭간호사회 영성세미나 (중앙본부)	2월		전국 간호사 영성 세미나
○교구 내 의료지원			안동 교구행사 시
○성지순례	5월		교구 내 또는 외부 성지 순례
○전국가톨릭간호사회 피정	10.17(토) ~18(주일)	농은수련원	전국 간호사회 피정
○성경 통독 모임	매월	교구청	월 1회 성경 통독, 전국 피정 지향
○생명환경운동			에너지 절약
○정기총회 및 피정	12월	교구청	한 해 마무리

10) 가톨릭교수회

회의·교육·행사	일시	장소	내용
○ 개강미사	3.11(수)	경국대학교	2026년 1학기 개강 미사 가톨릭학생회 공동참여
○ 교수 성서모임	3.4~6.10	경국대학교	성서봉독, 말씀나누기
○ 종강미사	6.10(수)	경국대학교	2026년도 1학기 종강미사 가톨릭학생회 공동참여
○ 개강미사	9.9(수)	경국대학교	2026년 1학기 개강 미사 가톨릭학생회 공동참여
○ 교수 성서모임	9.2~12.9	경국대학교	성서봉독, 말씀나누기
○ 종강미사	12.9(수)	경국대학교	2026년도 1학기 종강미사 가톨릭학생회 공동참여

11) 생태환경위원회

회의·교육·행사	일시	장소	내용
○ 탄소중립 포인트 안내를 위한 특강	연중 (매월 수 오후)	신청 본당	알맹상점 이용과 탄소중립 포인트 적립에 대해서(제로웨이스트)
○ 삼척 탈석탄 미사	연중	삼척우체국	탈탈탈 도보순례(15:00), 탈석탄 기후미사(14:00) 피켓팅(17:00)
○ 생태환경부장 및 차장 모임	3.14(토)	농은수련원	각 본당별 사례 발표 및 지구별 연대 방안 논의
○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운동	연중	각 본당 및 가정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을 각 본당과 개인 가정집에 설치 권고 및 안내(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와 한국에너지공단과 MOU 체결)
○ 찬미받으소서 생태피정	9.12(토)	농은수련원	창조시기에 따른 생태피정, '생태 영성을 찾아서'
○ 생태 특강	10.24(토)	농은수련원	지금 우리 결의 쓰레기-홍수열 소장 (지역순환사회경제연구소)
○ 탄소발자국 줄이기 실천표 지속적 제공	연중	41개 본당	본당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 자원순환을 위한 전자제품 모으기 운동	연중	41개 본당	자원순환을 위해서 전자제품에 있는 귀금속을 분리해서 판매하고, 판매금은 기부하기 위한 운동
○ 운영위원 연수	9월 중 ~ 10월 중	국립산림치유원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위한 연수
○ 주일학교 생태 강론 자료	연중	41개 본당	생태 교육 자료 보급
○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 자료	연중	41개 본당	기후 위기를 극복하여 내일이 있게 할 수 있는 실천적인 대안
○ 운영위원회 모임	격월 1주 토요일	교구청	본 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등 생태환경 사목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협의
○ 자문위원회	연회 및 필요시	교구청	본 위원회 제반 활동과 관련하여 자문

12) 가톨릭농민회

회의·교육·행사	일시	장소	내용
○ 48차 정기총회	1월	농민회관	활동평가 및 결산, 예산조정 총회준비
○ 대표자회의	매일 끝주 화	농민회관	활동 점검, 계획 수립
○ 상임위원회	홀수 달 셋째 금	농민회관	총회 위임사항 및 활동 점검
○ 교구 풍년기원미사	5월~6월 중	미정	풍년기원미사 및 손모내기
○ 제31회 농민주일 기념 미사 및 행사	7.19(주일)	안동교구	기념미사 및 행사
○ 회원 여름 연수	7월중	미정	단합대회
○ 교구 활동가 교육	상, 하반기		연 2회 진행
○ 교구 활동가 연수	5월(교구)		봄 연수
○ 전국 활동가 연수	8월(전국)	농민회관	활동가 봄 연수
○ 전국 우리농 총회	2~3월	미정	회장단
○ 전국 우리농 생활공동 체 대표자 회의	상, 하반기	미정	회장단
○ 제12회 선종회원, 지도신부 합동위령미사	11월 중	농은수련원	선종회원지도신부 합동위령미사
○ 가톨릭농민회 창립기념일 및 송년미사	12월 중		송년미사
○ 교구총회	12월	농민회관 미정	활동보고, 예산계획, 예결산보고 본부장, 농민회장, 생활공동체위원장, 실무자
○ 교구 대표자 회의	3월 6월 11월	농민회관	
○ 도농 결연성당 농민주일 특강	농민주일전후	결연성당	본부장 강론 및 쌀 약정 모집
○ 분회 일손돕기	5월, 6월 9월, 10월	농민회 분회	연 3~4회 진행
○ 교구 본당별 특강 (전 신자 대상)	연중	신청본당	우리농, 생태, 환경교육

13) 빈첸시오회

회의·교육·행사	일시	장소	내용
○임시회의	2.15(주일)	다미안 의원	제30차 교구이사회 정기총회 자료집 내용 검토
○정기총회	2.22(주일)	송현동성당	2025년 교구이사회 활동 및 결산보고 2026년 교구이사회 활동 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등
○정기회의	6.21(주일)	예천성당	빈첸시오회 활동과 관련이 있는 정보교환 빈첸시오 미설립 본당에 협의회 창립 및 휴면 협의회 부활 방안 논의
○성지순례	9.12(토)	명에목성지	·신앙심 고취 및 영적 성장 ·천주교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를 넓힘 ·회개, 위로, 공동체적 연대의 실현
○정기회의	11.8(주일)	계림동성당	빈첸시오회 미설립 본당에 협의회 창립 및 휴면 협의회 부활 방안 논의
○한국이사회 정기총회 및 정기회의	분기별	서울	3월, 6월, 9월, 11월
○홍보 및 창립지원	연중	각 본당	협의회별 활동 활성화 및 창립 제반사항 지원
○회보 『안동 빈첸시오』 발행	반기별	각 본당	4.12(하느님의자비주일), 11.15(세계가난한이의날)
○SNS를 통한 소통	연중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한국 이사회	협의회별 소개 및 신속한 정보교환 빈첸시오 간 유대강화

14) 향주삼덕선교회

회의·교육·행사	일시	장소	내용
○정기 피정-동계 피정	2.22~23(월)	용궁수련원	미사, 강의, 프로그램, 윗놀이
○봄 피정	4.18~19(주일)	용궁수련원	미사, 강의, 프로그램, 봄나들이(자연과함께)
○자체 피정-6월 피정	6.13~14(주일)	용궁수련원	미사, 강의, 프로그램
○하계 연수	8.8~10(화)	용궁수련원	미사, 강의, 프로그램, 물놀이
○가을 피정	10.24~25(주일)	용궁수련원	미사, 강의, 프로그램, 성지순례
○12월 피정	12.12~13(주일)	용궁수련원	미사, 프로그램, 총회

15) 가톨릭대학생연합회

회의·교육·행사	일시	장소	내용
○ 회장단 연수 및 1차 회의	3.13(금)	교구청	회장단
○ 대학생 연합 미사	3.29(금)	교구청	대학생 전체
○ 2차 회장단 회의	4.3(금)		회장단
○ 3차 회장단 회의	5.1(토)		회장단
○ MT	5.16~17(주일)		대학생 전체
○ 4차 회장단 회의	9.11(금)		회장단
○ 5차 회장단 회의	10.16(금)		회장단
○ 6차 회장단 회의	11.6(금)		회장단
○ 음악콘서트	12.5(토)		중, 고, 대학생, 청년 전체

16) 가톨릭청년연합회

회의·교육·행사	일시	장소	내용
○ 회장단 모임	2월 중 5월 중 10월 중	지구 순환 (안동, 문경, 상주)	2026년 활동 계획 및 청년연합회 프로그램 행사 계획 논의
○ 청년연합회 합동미사	3.22(주일)		교구 청년들이 함께 모여 청년연합회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건의를 통해 연합회 활동 방향을 정함.
○ WYD 봉사자 피정 및 수료식	4.11(토)~12	농은수련원	
○ 청소년·청년 연합 캠프	7.24(금)~26	농은수련원	청소년과 청년들이 1박 2일을 함께 지내며 친목을 다지고, 1년 앞으로 다가온 WYD를 준비하는 시간
○ 성지순례	10.25(주일)	미정	주님 안에서 함께 순례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짐.
○ 청년연합회 총회 및 친교의 날	12.6(주일)	의성지구	청년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는 시간 2026년 활동 및 예결산 보고, 2027년 활동계획 안내 및 논의

17) 수녀연합회

회의·교육·행사	일시	장소	내용
○교구 수도자 모임	3.24(화)	교구청	안동교구 수도자 모임
○교구 수녀연합회 모임	10.19(월)	미정	교구 수도자 단합대회

18) 가톨릭여성연합회

회의·교육·행사	일시	장소	내용
○연수 및 총회	1.31(토)	교구청	여성연합회 연수 및 총회
○상임위원회의	4.11(토)	교구청	임원 회의
○임원 피정	5.8~9(토)		임원 피정
○회의	8.1(토)	교구청	임원 회의
○피정	11.6-7(토)		여성연합회 피정

19) 가톨릭문인회

회의·교육·행사	일시	장소	내용
○신년인사회 문집배부	1.2(목)	목성동성당	각 성당, 특수사목 및 은퇴신부님, 참가신자
○정기모임	2.14(토)	태화동성당	지도 신부님과 신년 미사, 연간 계획 모임 장소 및 발표자 선정, 윗놀이
	5.9(토)	교구청	나의 글쓰는 방법, 특강
	9.12(토)	교구청	가톨릭문학 14집 발간계획 및 편집방향논의
○신입회원모집	10.11(주일)	갈전마티아	신입회원 모집 및 가톨릭 문학 문집 배부
○편집교정	10.20(화)	동인출판	가톨릭 문학 제 14집 편집 교정
○정기총회	11.7(토)	교구청	가톨릭 문학 출판 기념회 및 안동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의 날 운영

20) 가톨릭미술가회

회의 · 교육 · 행사	일 시	장 소	내 용
○ 안동가톨릭미술가회 정기총회	12.20(주일)	묵향	27년 계획발표
○ 연피정	6월 중	농은	친목 도모를 위한 문경 성지 방문
○ 제9회 안동가톨릭미술가회전	10.13 ~18(주일)	예술의전당	교구 본당 그림전

21) 가톨릭전례꽃꽂이 연구회

회의 · 교육 · 행사	일 시	장 소	내 용
○ 제 7차 정기총회	1.3(토)	교구청	정기총회, 미사 및 전례작품 발표
○ 월례회의(토)	2.7, 3.7 4.4, 5.2 6.6, 7.4 9.5, 10.3 11.7, 12.5 (토)	교구청	미사 및 전례 작품 발표, 데몬 교육
○ 아카데미 개강	3.5(목)	교구청	아카데미강좌 개강-제3기 고급반
○ 아카데미 수료 작품전	6.19~20(토)	교구청	아카데미 종강 및 수료작품전-제3기 고급반
○ 아카데미 개강	9.3(목)	교구청	아카데미 강좌 개강 (제3기 전문가반, 제4기 초급, 중급)
○ 아카데미 종강	12월	교구청	아카데미 강좌 종강

IV. 월중행사표

V. 교구 간행물
원고 담당 및
기타 계획

1. <가톨릭안동> 강론 담당

■ 원고 분량은 A4용지 1장(글자크기 11) 정도이며, 강론 제목을 꼭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sa3119@nate.com Fax : 856-6101

월	일	전례력	집필담당	도착일자
1	4	주님 공현 대축일	배인호	2025. 12. 12
	11	주님세례축일	배인호	2025. 12. 19
	18	연중 제2주일	권용오	2025. 12. 26
	25	연중 제3주일 (하느님의 말씀주일, 해외원조주일)	권용오	2026. 01. 02
2	1	연중 제4주일	권중희	2026. 01. 09
	8	연중 제5주일	권중희	2026. 01. 16
	15	연중 제6주일	우병현	2026. 01. 23
	22	사순 제1주일	우병현	2026. 01. 30
3	1	사순 제2주일	차광철	2026. 02. 06
	8	사순 제3주일	차광철	2026. 02. 13
	15	사순 제4주일	이형철	2026. 02. 20
	22	사순 제5주일	남상우	2026. 02. 27
	29	주님 수난 성지 주일	김진조	2026. 03. 06
4	5	주님 부활 대축일	주교님 담화	2026. 03. 13
	12	부활 제2주일(하느님의 자비 주일)	김진조	2026. 03. 20
	19	부활 제3주일	손성문	2026. 03. 27
	26	부활 제4주일(성소 주일)	권형배	2026. 04. 03
5	3	부활 제5주일(생명 주일)	손성문	2026. 04. 10
	10	부활 제6주일	김지성	2026. 04. 17
	17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김재형	2026. 04. 24
	24	성령 강림 대축일	김지성	2026. 05. 01
	31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청소년 주일)	윤여홍	2026. 05. 08
6	7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우석민	2026. 05. 15
	14	연중 제11주일	우석민	2026. 05. 22
	21	연중 제12주일	서동호	2026. 05. 29
	28	연중 제13주일(교황 주일)	최한별	2026. 06. 05

월	일	전 려 력	집 필 담 당	도 착 일 자
7	5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이한결	2026. 06. 12
	12	연중 제15주일	이한결	2026. 06. 19
	19	연중 제16주일(농민 주일)	안영배	2026. 06. 26
	26	연중 제17주일(조부모와 노인의 날)	박효재	2026. 07. 03
8	2	연중 제18주일	박효재	2026. 07. 10
	9	연중 제19주일	강문석	2026. 07. 17
	16	연중 제20주일	강문석	2026. 07. 24
	23	연중 제21주일	오정형	2026. 07. 31
	30	연중 제22주일	오정형	2026. 08. 07
9	6	연중 제23주일	정도영	2026. 08. 14
	13	연중 제24주일	정도영	2026. 08. 21
	20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양호준	2026. 08. 28
	27	연중 제26주일(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이동명	2026. 09. 04
10	4	연중 제27주일	양호준	2026. 09. 11
	11	연중 제28주일(군인 주일)	백동수	2026. 09. 18
	18	연중 제29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전교 주일)	김정현	2026. 09. 23
	25	연중 제30주일	김정현	2026. 10. 02
11	1	모든 성인 대축일	김시영	2026. 10. 08
	8	연중 제32주일(평신도 주일)	김시영	2026. 10. 16
	15	연중 제33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최송근	2026. 10. 23
	22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성서 주간)	최송근	2026. 10. 30
	29	대림 제1주일	김한모	2026. 11. 06
12	6	대림 제2주일 (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간)	김한모	2026. 11. 13
	13	대림 제3주일(자선 주일)	김기환	2026. 11. 20
	20	대림 제4주일	김기환	2026. 11. 27
	27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성화 주간)	황재모	2026. 12. 04
1	3	주님공헌대축일	황재모	2026. 12. 11

2. <띄움>‘부르심’ 원고 담당

- 원고 분량은 A4용지 1장(글자크기 11) 정도이며, 제목을 꼭 붙여 주시고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sa3119@nate.com Fax : 856-6101>

월	사제의 단상	도착일자
1	김재형 베드로	2025. 12. 01
2	손성문 사도 요한	2026. 1. 01
3	류한빈 안드레아	2026. 2. 01
4	권형배 알베르토	2026. 3. 01
5	정철환 타대오	2026. 4. 01
6	황영화 마티아	2026. 5. 01
7	최장원 라우렌시오	2026. 6. 01
8	안영배 사도 요한	2026. 7. 01
9	김진조 베드로	2026. 8. 01
10	이형철 베드로	2026. 9. 01
11	정도영 베드로	2026. 10. 01
12	김원현 베드로	2026. 11. 01

3. <못자리> 원고 담당

- 못자리에 실릴 그림과 ‘우리들 이야기’에 들어갈 글의 원고를 부탁드립니다.
해당하는 날짜의 복음을 읽고, 그림과 글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고량은 A4용지 1/3 정도입니다. 도착일자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본당 주일학교 사진 3~4장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원고에 참여한 학생의 이름과 세례명, 학년을 기재해 주십시오.)
E-mail : sa3119@nate.com, Fax : 054)856-6101

월	일	전 레 력	집 필 담 당	도 착 일 자
1	4	주님 공현 대축일	용상동 어린이	해당 월 기준 전월 첫 월요일까지
	11	주님 세례 축일	모전동 어린이	
	18	연중 제2주일	-	
	25	연중 제3주일 하느님의 말씀 주일, 해외 원조 주일	-	
2	1	연중 제4주일	개운동 어린이	
	8	연중 제5주일	-	
	15	연중 제6주일	-	
	22	사순 제1주일	남성동 어린이	
3	1	사순 제2주일	송현동 어린이	
	8	사순 제3주일	-	
	15	사순 제4주일	-	
	22	사순 제5주일	-	
	29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영양 어린이	
4	5	주님 부활 대축일	의성 어린이	
	12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	
	19	부활 제3주일	-	
	26	부활 제4주일 성소 주일	하망동 어린이	
5	3	부활 제5주일 생명 주일	-	
	10	부활 제6주일	-	
	17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	
	24	성령 강림 대축일	갈전마티아 어린이	
	31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청소년 주일	서문동 어린이	
6	7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목성동 어린이	
	14	연중 제11주일	-	
	21	연중 제12주일	-	
	28	연중 제13주일	봉화 어린이	

월	일	전 려 력	집 필 담 당	도 착 일 자
7	5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모전동 어린이	해당 월 기준 전월 첫 월요일까지
	12	연중 제15주일	-	
	19	연중 제16주일 농민 주일	계림동 어린이	
	26	연중 제17주일	-	
8	2	연중 제18주일	남성동 어린이	
	9	연중 제19주일	-	
	16	연중 제20주일	북면 어린이	
	23	연중 제21주일	-	
	30	연중 제22주일	-	
9	6	연중 제23주일	태화동 어린이	
	13	연중 제24주일	-	
	20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화령 어린이	
	27	연중 제26주일 세계이주민과 난민의 날	-	
10	4	연중 제27주일	갈전마티아 어린이	
	11	연중 제28주일 군인 주일	-	
	18	연중 제29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휴천동 어린이	
	25	연중 제30주일	-	
11	1	모든 성인 대축일	송현동 어린이	
	8	연중 제32주일	-	
	15	연중 제33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	
	22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성서 주간	영덕 어린이	
	29	대림 제1주일	-	
12	6	대림 제2주일 인권 주일	점촌동 어린이	
	13	대림 제3주일 자선 주일	-	
	20	대림 제4주일	-	
	27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목성동 어린이	

4. <두레판> 원고 담당

- 두레판의 본당 참여 코너에 신부님, 수녀님, 교사, 학생의 짧은 생각 나눔을 신고자 합니다. 주제는 사목국에서 사전에 안내메일을 드립니다.

원고 분량은 A4용지 ½ 정도입니다. 도착일자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보낼 때 제목을 기재해 주시고,

본당 주일학교 사진 3~4장도(단체사진, 활동사진 등) 함께 보내주십시오.

E-mail : sa3119@nate.com Fax : 856-6101

월	원고 담당	도착 일자	비고
봄호 (3-5월)	송현동, 용상동, 남성동, 신학생	2026.1.12	* 주제에 맞는 활동사진
여름호 (6-8월)	태화동, 하망동, 목성동, 예천	2026.4.13	
가을호 (9-11월)	개운동, 모전동, 휴천동, 갈전 마티아	2026.7.13	
겨울호 (12-2월)	봉화, 의성, 점촌동, 계림동	2026.10.12	